

농림축산식품부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배합사료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1월 1일부터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축용 배합사료는 사료업체와 축산농가 간의 직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에 따라 농가별 판매가격이 달랐고, 이로 인해 축산농가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지 알 수 없었고, 다른 유사한 제품과의 가격 비교를 할 수도 없었다.

농식품부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을 통해 축산농가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배합사료 제품 간 가격 비교가 용이해져 업체 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축산농가가 이전보다 배합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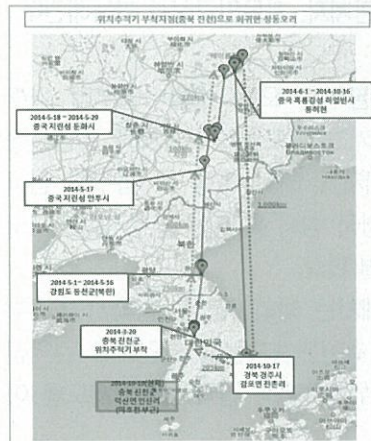
또한 향후 판매장소에 성분표시를 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을 개정하여 제품의 가격과 성분을 동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농가가 배합사료의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표시의무자 : 「사료관리법」 제2조제9호의 판매업자

- ② 표시대상 :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
- ③ 표시방법 : 매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에 표시
- ④ 정보 제공방법 : 축종 단체가 가격 정보를 종합하여 축산농가에 제공
- ⑤ 이행실태 점검 : 농관원 또는 시·도지사에 게 권한을 위임하여 연중 1회 이상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 ⑥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규정에 따름

농림축산검역본부

GPS부착 청둥오리 중국에서 충북 진천군 미호천 주변에 도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올 3월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한 청둥오리가 최초 부착지인 충북 진천군 미호천 일대에 지난 10월 19일

인 충북 진천군 미호천 일대에 지난 10월 19일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5차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HPAI 발생국을 경유한 철새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어 검역본부는 2013년도부터 철새의 이동경로 및 서식지 파악을 위하여 철새에 GPS를 부착해 왔다('13년 70마리, '14년 65마리).

검역본부는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겨울철새가 HPAI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철새를 포획하거나 철새의 분변 등을 수거하여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HPAI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철새 도착지 주변 철새의 분변·폐사체 등에 대한 면밀한 정밀검사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우리나라에는 지난 9월 말경부터 이미 많은 수의 야생철새가 겨울철 월동을 위하여 시화호, 천수만 등 주요 철새도래지에 도착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므로 철새를 통한 HPAI 유입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 등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 축산관계자, 자동입국심사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가축사육 농장주(동거가족 포함), 수의사와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계자가 해외 여행 후 법무부 입국심사시 '자동 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축산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시 법무부 입국심사관이 축산관계자임을 확인하고 검역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 입국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규제완화 요구 및 2011년

7월부터 추진해 온 「축산관계자 국경검역 관리 시스템」의 운영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단체의 규제완화 요구와 축산관계자의 검역신고 중요성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으로 높은 검역 신고율(99.6%)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자동 입국 심사' 이용 제한 조치를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축산관계자의 검역 신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축산관계자의 자동 입국심사시 안내 화면에 '축산관계자 검역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문구의 표출 등 홍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또한 미신고자의 발생시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지자체에서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소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 기술 평가 결과 공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3일 올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 기술을 평가한 결과를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평가결과는 전국 각 도·시·군청의 축산 또는 환경부서,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도 책자로 배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 정보 책자는 올해 평가 정보 제공 대상인 8개 시설을 비롯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5개 시설 등 33개 시설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 기술 평가는 산업체·학교·기관·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전문 위원회'가 서류심사, 기술발표 심사, 현지 평가 등 세부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했다.

이 평가는 해마다 1회 수행하며 2015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주체는 내년 상반기 2015년 평가 실시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청렴문화 확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지난 10월 22일 본부에서 각 지원 분임행동강령책임관 및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장의 "청렴윤리 강화의 필요성과 실천과제"의 명사특강을 실시했으며 직원간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시책 공유를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

허 영 원장은 "청렴한 조직이 국민에게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기에 전 직원은 윤리의식 내재를 통해 청렴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규직원 39명 임용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3일 본부에서 신규직원 39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신규직원은 돼지이력제 본 사업 실시(2014. 12월)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직 8명과 축산물품질평가직 31명을 임용했고, 이들은 2주간 본부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업 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축산물품질평가직 31명은 6개월간 현장에서 축산물품질평가사 양성에 관한 교육을 추가로 받게 된다.

1사1촌 농촌사랑 봉사활동 펼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0월 17일 1사1촌 마을인 하번천리마을에서 직원들과 마을주민 함께 한 농번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들이 직접

기관 · 단체 소식 News

파종하여 정성들여 키운 유기농 고구마 수확과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진행한 농촌마을 꽃나무 가꾸기 행사 때 식재한 꽃나무 시비를 겸한 행사로 진행했다.

이번에 수확한 고구마는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하는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 전화예찰요원 전문역량 강화 교육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사무국장 노정승)는 지난 10월 27일 전화예찰요원들의 농장 예찰업무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를 방문하여 전문교육을 받았다.

이번교육엔 전화예찰요원 28명이 참여했으며 강의는 연구소 박경애 팀장이 주요가축질병에 대한 임상증상 특징을 보다 간결하게 설명했으며 축산농가와의 전화예찰 시 임상증상 예찰방법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또한 정밀진단팀 검사실을 방문하여 검사 과정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 앞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임병규 소장은 시험소를 찾은 전화예찰요원들에게 "매월 2

회씩 모든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찰과 가축전염병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가 스스로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한국도종닭협회

“제4회 양계사진공모전 개최”



(사)한국도종닭협회(회장 김연수)가 주관하고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4회 양계사진공모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11일 ~ 9월 27일까지 총 66명 167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0월 10일 심사를 한 결과 김재은의 자유로운 영혼들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양계사진 공모전은 36작품(대상 1작, 우수상 2작, 장려상 3작, 입선 30작), 총 상금 790만원으로 친근한 양계사진을 일반인에게 소개함으로써 국내 양계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3저1고(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 건강식품인 국산 닭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를 위하여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김연수 회장은 "양계사진공모전을 통하여 양계

산업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자조금연합

공중파 통해 동물성단백질 중요성 알리기 나섰다



축산자조금연합은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축산물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공중파 아침방송인 SBS 모닝와이드에 5회에 걸친 특집 시리즈, '먹으면 좋다! 동물성 단백질'을 기획·방송했다.

축산자조금연합은 축산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의 문제와 함께 비만, 성인병 등의 원인으로 축산물이 집중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9개 축산자조금(한돈·한우·우유·닭고기·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이 축산물 및 축산업 인식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의 주체명이다.

지난 8월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연령별로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전문가 소견청취, 축종별 건강 요

리법 등을 함께 소개했다.

갱년기 이후 부쩍 복부비만이 늘어나 육류섭취를 기피하는 중년여성을 위해서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섭취를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식 방법을 소개했으며,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밥상에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 이외에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 중요함을 부각하고 최고의 식재료인 '돼지고기'와 '계란'을 이용한 성장기 건강 요리법을 선보였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오해로 육류를 거의 섭취하지 않는 노인에게는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를 이용해 근력 강화에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높이되 지방섭취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단백질 이외의 영양학적 가치에도 주목했다. 철분 부족으로 인한 대표적 질병인 '빈혈'을 앓고 있는 사례를 들어 실제 쇠고기와 사슴고기를 즐겨먹어 점차 호전된 사례자들의 모습과 관절염의 위험을 예방하는 '우유'와 '꿀 계피차' 응용법도 소개됐다.

자문을 맡은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문현경 교수는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육류 섭취량이 매우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을 이유로 육류 섭취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자주 노출된다"며 "노인이나 여성,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육류 섭취를 통한 완전단백질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육류섭취를 기피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축산자조금연합은 축산물·축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 어린이 대상 교재 개발, 오해 해소용 홍보물 배포 및 심포지엄과 강연 등 향후에도 단계별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